

논술 - 인문

한양대 편

코드킴 인문논술

목 차

2018 인문 문항 / 해설	3
2018 상경 인문논술 문항 / 해설	10
2015 인문 오후1 문항 / 해설	14

코드킴 인문논술

[문제] (가)와 (나)를 바탕으로, 공감 능력의 의미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이를 토대로 공감 능력과 관련하여 (다)의 [A]와 [B]를 분석하시오. (1,200자, 100점)

(가)

흄(Hume, D.)은 행위를 자극하는 동기를 이성에서 찾기보다는 고통, 공포심, 증오, 사랑과 같은 감정에서 구했다. 흄에 따르면 이성은 참과 거짓을 밝혀낼 수 있을 뿐, 어떤 의욕도 불러일으킬 수 없다. 이성만으로는 어떤 행동도 유발할 수 없으며 이성은 다만 감정이 이끄는 대로 따르는 도구적인 능력에 불과하다. 흄에게 도덕의 원천은 쾌락과 고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쾌락과 고통이 도덕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오직 특별한 종류의 쾌락과 고통, 즉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타인과 함께 하는 보편적인 차원의 쾌락과 고통의 감각만이 도덕심의 핵심이다. 모든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공감(共感)의 능력이 있으며 이 공감 능력이 인간 도덕성의 기초이다. 흄에 따르면 이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것에 쾌감을 느끼게 되며 그것이 바로 선(善)이다.

윤리적 실천에서 공감 능력의 중요성은 배려적 사고에서 잘 드러난다. 배려적 사고는 다른 사람의 필요 욕구나 감정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그의 욕구나 감정을 존중해 주는 것을 말한다. 배려적 사고를 위해서는 도덕적 감수성과 공감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도덕적 감수성에서 기본적인 것은 도덕적 문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이다. 예컨대 인권 침해 상황을 도덕적 문제 상황으로 지각하고 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인권에 대한 도덕적 감수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공감 능력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필요 요구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역지사지의 능력에 해당한다.

(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공감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 이에 더해 어떤 이들은 우리 사회에 좀 더 많은 공감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부족은 공감의 부족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오랜 대립은 오직 양 측이 상대방의 입장에 좀 더 공감할 때만 해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감 능력의 윤리적, 사회적 가치는 과장되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충분한 동정심을 느끼며 그들을 배려하는 능력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공감 능력의 원래 뜻, 즉 다른 사람의 느낌, 감정을 충실하게 느끼거나(감정적 공감), 상상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인지적 공감) 능력이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생명이 위급한 중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환자의 고통에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공감한다면 그 끔찍함에 압도당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할 수 있다. 인지적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중에는 이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비윤리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도 많다.

공감 능력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능력과 같다. 비추는 대상은 주목받지만 그렇지 못한 대상은 부당하게 무시될 수 있다. 우리는 허리케인처럼 드물게 발생하는 끔찍한 사건의 희생자에 공감하기는 쉬워도, 통계적으로 훨씬 더 많은 '평범한' 전염병 희생자의 아픔에 공감하기는 어렵다. 재해로 집을 잃은 어린 아이의 생생한 이미지에 공감하기는 쉬워도, '차가운' 추상적 통계 숫자로 제시되는 대중에 공감하기는 어

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중 매체에서 실시간으로 보도하는 지금 현재 벌어지는 비참한 상황에 공감하기는 쉬워도, 미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더 심각한 상황에 공감하기는 어렵다. 장기적 영향을 끼치는 정책적 결정을 내릴 때 공감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특정 윤리적, 사회적 사안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우리는 무엇이 도덕적으로 비난받거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인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맹자가 강조한 측은지심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는 우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다. 그에 비해 공감 능력은 사안의 특정 측면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써 도리어 우리의 도덕적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인지적 공감 능력은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능력은 우리의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방해하는 편견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에 차분하게 숙고하는 비판적 이성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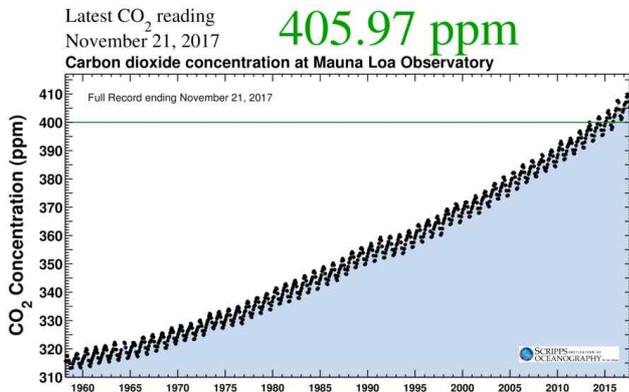
(다)

[A]

(a) 킬링 곡선(Keeling Curve): 온실 기체인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농도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지구 온난화의 결정적 증거로 평가된다.

(b) 북극곰: 지구 온난화로 생존을 위협받는 동물로 자주 언급된다.

(a) 킬링 곡선(Keeling Curve)



(b) 북극곰



[B] 착취 공장(sweatshop): 19세기에 영국 등 산업 선진국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현재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주로 운영된다. 아동 노동과 열악한 노동 환경 등으로 악명이 높아서 국제적으로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논제 분석

[문제] (가)와 (나)를 바탕으로, 공감 능력의 의미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이를 토대로 공감 능력과 관련하여 (다)의 [A]와 [B]를 분석하시오. (1,200자, 100점)

1. (가)와 (나)를 활용해 공감능력을 설명하되, 사례를 포함할 것
2. 1을 바탕으로 (다)의 A와 B를 각각 분석

위와 같이 논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만, 논제의 분석이 상세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엔, 제시문 독해를 바탕으로, 제시문들의 내용적 관계성을 조금 파악해본 다음, 논제 분석에 이를 활용하면, 더 정확한 논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일단, 제시문 독해로 넘어가보도록 합시다.

제시문 분석

제시문 (가), (나)는 각각 공감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이야기하는 공감이 약간 다른 듯 합니다.

정리 독해를 사용해서 제시문을 읽어봅시다.

한편, 공감은 행위에 가까우니 행위의 도구를 사용하는 게 적절해보입니다.

(가) - 감정에서 나오는 공감

주체 - 모든 인간

배경 - 이성은 감정에 따르는 도구에 불과

양상 - 감정으로부터 촉발된 공감이 필요함 -> 배려적 사고에 있어서 도덕적 감수성과 더불어 중요

결과 - 올바른 공감을 할 수 있음

(가)는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감을 하는 주체는 딱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굳이 잡아내보자면 ‘모든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공감(共感)의 능력이 있으며’ 라는 부분을 통해, 공감은 모든 인간들이 가진 보편적 속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주체에 ‘모든 인간’을 적어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공감이 꼭 감정에서 촉발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성은 감정에 따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흠에 따르면 이성은 참과 거짓을 밝혀낼 수 있을 뿐, 어떤 의욕도 불러일으킬 수 없다. 이성만으로는 어떤 행동도 유발할 수 없으며 이성은 다만 감정이 이끄는 대로 따르는 도구적인 능력”

이성으로는 공감에 도달할 수 없으며, 진정한 공감을 위해서는 감정에서부터 공감이 촉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즉, 왜 공감이 감정으로부터 나오는지, 그에 대한 배경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감은 따라서, 이성이 아닌, 감정에서부터 유발되어야 합니다. 이는 배려적 사고에 있어서 도덕적 감수성과 더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배려적 사고에서 공감은, 역지사지의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이성에서 촉발될 수 없는, 감정에서만 촉발될 수 있는 공감은 배려적 사고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나) - 이성적 공감

주체 - 인간

배경 - 1. 공감 능력의 가치는 과장됨 (일부 사례에서는 과도한 공감이 악영향을 미침)

ex) 의사, 공감의 비윤리적 악용 우려

2. 이성으로도 충분히 도덕적 행위의 근거를 판단할 수 있음

양상 - 비판적 이성으로 공감을 대체하여야 함 -> 비판적 이성이 공감에 필요함

결과 - 올바른 공감으로 나아감

영향을 주는 요소 - 과도한 감정(방해 요소)

(나)는 공감의 가치가 과장되었으며, 이는 비판적 이성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 공감의 가치는 과장된 것이고, 이성으로도 충분히 도덕적 행위의 실천을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판적 이성으로 공감 능력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완전한 대체를 요구한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오히려, 공감능력의 실현에 있어서, 비판적 이성이 일정량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올바른 공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성의 개입을 방해할 만한 요소는 과도한 공감(감정으로부터 유발된)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추론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요.

문제 풀이 1

코드킴 인문논술

(가)와 (나)의 내용은 약간 충돌하는 면이 있지만, 둘을 모두 사용해서 공감 능력에 대한 정의를 내려줘야 합니다. 제시문 어느 하나만을 이용할 게 아닙니다. 논제에서 '종합적 서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는 공감을 감정에서 유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나)는 공감의 실천에 있어서 비판적 이성도 요구합니다. 둘을 합하여 생각해 보면, 공감능력은 감정에서 유발되어야 하는 것이 되, 오로지 감정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그에 비판적 이성이 첨가되어야만 올바른 공감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합적 사고를 담은 답안을 만든다면, (가)와 (나)가 상호보완적 관계에 놓여 있음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면, 일단은 시의성이 충분한 이슈인, '세월호 사건'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죽은 사건에 대해 감정적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진정한 추모의 의미로 가지 못한 채, 누군가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혹은, 너무나도 감정적인 것에 치우친 나머지, 동종 사건 재발 방지를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감정에서 우리나라의 피해자에 대한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재발을 막기 위한 비판적 이성이 함께 어우러져야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시의성이 있는 이슈가 너무 정치적이라고 생각되신다면 고전적인 사례를 드셔도 좋습니다. 독일의 나치즘에 동조했던 독일 국민들은, 비판적 이성 없이 무조건적으로 전범 사상에 동의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이 나치가 끔찍한 일을 벌이도록 힘을 쥐어줬죠.

문제 풀이 2

(다)에서는 [A]와 [B], 두 자료가 등장합니다. [A]는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킬링 곡선과, 북극곰의 사진이 등장합니다. [B]에서는 착취공장에 대한 사진과 설명이 등장합니다.

일단 (다)의 [A]부터 살펴봅시다. 킬링곡선은 북극곰의 사진에 비해 감정적인 공감에 힘들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북극곰이 가진 생생한 이미지에는 공감하기가 수월합니다. 이는 제시문 (나)의 구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해로 집을 잃은 어린 아이의 생생한 이미지에 공감하기는 쉬워도, ‘차가운’ 추상적 통계 숫자로 제시되는 대중에 공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방금 공감능력에 대해 정의를 내렸을 때, 감정과 비판적 이성의 상보적 관계를 제시했습니다. 북극곰의 사진만을 활용한 공감은 북극곰이라는 종에 대한 피상적인 대안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북극곰만을 보호한다고 해서, 지구 온난화와 같은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북극곰의 멸종의 원인이 되는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없으니,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대안이 만들어집니다. 북극곰의 사진을 이용하여 감정으로부터 우리나라오는 공감을 유도하되,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울 때엔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킬링 곡선을 비판적 이성으로 분석하여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B]도 마찬가지입니다. 착취 공장에 대해서 불매운동같은 감정적인 대응만 한다면, 오히려 착취공장의 구조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낮아진 수익률을 되돌리기 위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노동 착취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이성적인/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인프라를 만들어 준다거나 하는 방안이죠.

예시답안

(학교가 발표한 3개의 우수 답안을 종합하고 수정하여,
가장 정답에 가까운 예시답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가)의 흠은 도덕성은 느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성적 능력은 감정에 따르는 도구에 불과하다. 즉, 그에게 있어 공감 능력의 의미란 감정에서 유발되고, 도덕적 감수성과 결합하여 배려적 사고를 해내는 인간 도덕성의 기초이다. 그러나, 이처럼 감정에서 유발되는 공감 능력이 항상 옳은 결과만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나)에 따르면 공감 능력의 윤리적 가치는 다소 과장되었다. 이를테면 공감의 능력을 지닌 인간들 중 인지적 공감 능력이 뛰어난 자가 이를 악용하여 이성적 판단 능력이 약한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즉, 감정에서 유발되는 공감이 지나쳤을 경우에는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비판적 이성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독일의 나치즘을 예로 들 수 있다. 많은 독일의 국민들은 강인한 독일에 대한 환상을 품었고, 폭력적 사상에 공감하였다. 그 결과, 나치는 끔찍한 전쟁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독일 국민들이 나치의 사상에 공감하기 전에 비판적 이성을 사용하여 판단을 거쳤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다.

(다)의 [A]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자료를 보여준다. (a)에서 킬링 곡선은 이산화탄소 증가 수치를 보여준다. 이산화탄소가 증가함에 따라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짐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수치는 우리의 공감능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오히려 (b)에 있는 북극곰의 사진이 우리에게 공감을 이끌어내기 쉽다. 우리에게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b)의 북극곰 사진에만 공감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 방안은 북극곰을 보호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즉, 북극곰이 멸종 위기가 되어가는 현실 자체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b)의 사진을 이용해 우리의 감정에서 공감능력을 이끌어내고, (a)를 활용해 비판적 이성을 이용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떠올려야 한다. [B]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착취공장은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형태의 공장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부당함에 분노하여 감정적인 대응으로 불매운동을 벌인다면, 이는 올바른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 불매운동으로 착취공장의 매출이 줄어든다면, 착취의 구조가 더욱 심화되어 사태가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녀의 사진을 사용하여 감정에서 우리나라는 공감을 하되, 비판적 이성을 사용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필요하다. 아동 노동을 줄이기 위해 윤리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캠페인을 벌이거나, 그들을 위한 학교와 같은 인프라를 확충하여 노동의 이유를 없애는 것이다. (1339자)

[문제 1] (가)의 ‘밀크셰이크의 실수’에 해당하는 내용을 (나)에서 찾아 설명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블로그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늘어난 이유’를 제시하시오.

(600자, 50점)

(가)

맥도널드 사는 밀크셰이크 판매를 늘리기 위해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 달라고 연구자들에게 조사를 맡겼다. 밀크셰이크를 좀 더 걸쭉하게 만들어야 할까? 아니면 더 달게? 혹은 더 차갑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제품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렇지만 제럴드 버스텔은 밀크셰이크 자체는 무시하고 대신에 고객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했다. 그는 맥도널드 가게에서 하루에 18시간 동안 죽치고 앉아 어떤 사람이 어느 시각에 밀크셰이크를 사는지 조사했다. 그렇게 해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는데, 이른 아침 시간에 밀크셰이크를 사 가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다. 오전 8시에 밀크셰이크를 마시는 것은 베이컨과 달걀로 아침 식사를 하는 미국인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지 않았다. 버스텔은 아침에 밀크셰이크를 사러 온 고객들의 행동에서 세 가지 단서를 더 얻었다. 밀크셰이크를 사러 온 사람은 항상 혼자였고, 밀크셰이크 외에 다른 것은 거의 사지 않았으며, 가게 안에서 밀크셰이크를 마시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침에 밀크셰이크를 사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로, 일터로 차를 몰고 가는 도중에 그것을 마시려고 샀다. 이런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나서 그 행동은 충분히 수공이 갔지만, 다른 연구자들이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그런 행동이 밀크셰이크나 아침 식사에 대한 통념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열쇠는 제품만 따로 떼어내 바라보는 방식을 포기하고, 아침 식사에 대한 전통적인 통념에서 벗어나는 데 있었다. 버스텔은 아주 간단한 한 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침 8시에 고객은 어떤 일에 쓸 목적으로 밀크셰이크를 구입하는가?”

운전하는 동안 뭔가를 먹으려면, 한 손으로만 잡고 먹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되고, 먹기에 거추장스러워도 안 되고, 기름기가 많아도 안 된다. 맛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다 먹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야 한다. 전통적인 아침 식사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고객들은 아침 식사의 신성한 전통을 무시하고 원하는 일을 해 줄 대상으로 밀크셰이크를 찾았던 것이다.

버스텔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자들이 이 사실을 놓친 이유는 두 종류의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런 종류의 실수를 ‘밀크셰이크의 실수’라고 부르기로 하자. 첫 번째 실수는 제품에만 관심을 집중하였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모두 제품의 속성에 있다고 가정하고서 고객이 원하는 그 제품의 역할을 무시한 데 있었다.

두 번째 실수는 사람들이 아침에 늘 먹어온 음식의 종류에 대해 편협한 견해를 받아들인 것이었다. 밀크셰이크 자체나 아침 식사의 전통은 그러한 방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고객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 일이란 아침 출근 시간에 에너지를 보충해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인데, 그들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밀크셰이크를 구입했다.

(나)

블로그는 오랫동안 뉴스 소비자에 불과했던 개인들에게 뉴스를 직접 생산할 기회를 주었다. 블로그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람이면 누구나 뉴스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동시에 배급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 또한 기존의 전통적 매체가 전달하는 뉴스에 자신만의 해석을 더한 다양한 뉴스를 확산시키기도 한다. 이처럼 블로그가 언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해, 또는 블로그가 발전해 가는 방향을 보며 이제는 많은 사람이 블로그를 ‘1인 미디어’라고 부르는 데 동의할 것이다.

블로그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자유로운 소통을 구현하려는 원래의 순수한 의도를 소중히 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블로그는 사회적 매체로서의 기능이 가장 잘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양질의 블로그 콘텐츠가 많이 생산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블로그가 언론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형식만이 아니라 기사 제공, 의제 설정, 참여 방법 등을 블로거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러면 왜 지금 이 시기에 블로그와 같은 개인 매체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늘어난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흔히 그 이유를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서 찾는다. 우리들이 PC부터 스마트폰까지 개인이 사용하는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새로운 미디어 도구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또 다른 이유로 실체가 아닌 가상의 세계에 개인적인 공간이 등장해서 블로그의 사용이 급증하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코드킴 인문논술

문제 분석

[문제 1] (가)의 ‘밀크셰이크의 실수’에 해당하는 내용을 (나)에서 찾아 설명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블로그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늘어난 이유’를 제시하시오.

1. (가) 밀크셰이크의 실수 제시
2. (나)와 1을 연결하여 설명
3. 블로그의 영향력 증가 이유 서술

제시문 분석

제시문이 길지 않고, 내용과 형식이 단순한 편입니다.

이는, 제시문의 유형(설명문, 주장문)에 따라 독해하는 방식으로 글을 정리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가)- 밀크셰이크의 실수

1. 제품 그 자체에만 초점
2. 전통적 통념에 문힘

-> 제럴드 버스텔은 제품 이용의 목적을 생각하고, 전통적 통념에서 탈피하여 문제 해결

(나) - 블로그의 영향력 확산

이유 :

1.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2. 가상 공간에 개인적인 공간이 등장

문제 풀이

(가)-> (나) 설명

(가)- 1 : 블로그가 가진 특성(개인적 공간)에만 주목함

(가)- 2 : PC와 스마트폰, 개인 통신 기기의 발달이라는 전통적인 편협한 견해에 빠짐

‘블로그의 영향력이 늘어난 이유 설명’

(가)의 제럴드 버스텔이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으로 동일하게 제시하는 게 가장 쉬움

1. 블로그의 특성이 아닌, 사용하는 목적에 주목
2. 전통적 사고에서 탈피 -> 개인 통신 기기의 발달이라는 편협한 견해가 아닌, 경제적 이유와도 같은 새로운 견해가 필요

예시 답안

(가)의 ‘밀크셰이크의 실수’는 제품 자체의 속성에만 집중하여 제품의 역할과 그 제품이 소비되는 맥락을 간과하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 통념에 사로잡혀 편협한 사고를 하는 것이다.

(나)에 나타난 블로그의 영향력이 급증한 이유는 밀크셰이크의 실수로 분석할 수 있다. (나)에서 분석한 영향력 급증 이유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했다는 이유와 가상의 세계에 개인적 공간이 드러났다는 것인데, 이는 각각 밀크셰이크의 실수에 속한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개인 통신 기기의 발달이라는 사례를 블로그의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편협한 사고를 드러내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블로그가 개인적 공간이라는 것은 블로그의 속성만 분석한 것으로, 블로그를 사용하는 목적이나 그 역할을 담지 못한다.

블로그의 영향력이 급증한 이유는 (가)의 제럴드 버스텔이 밀크셰이크의 실수를 탈피한 것을 활용하여 찾아낼 수 있다. 블로그의 운영 목적에 주목한다면, 블로그는 인터넷에서 사람들 간에 정보의 교환이나 소통을 위한 것이다. 공간적 제약 없이 소통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사용하는 것이다. 한편, 통신 기기의 발달이라는 기술적 측면의 변화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블로그의 경제적 측면에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블로그가 잘 운영된다면, 기업체로부터 광고를 얻게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인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660자)

코드킴 인문논술

[문제] 다음은 추사 김정희의 작품 「세한도(歲寒圖)」이다. (가)를 참고하여 (나)에서 제시된 방법에 따라 「세한도」의 의미를 해석한 다음, (나)와 같은 관점의 문제점을 (다)를 바탕으로 지적하고, (다)와 같은 관점에서 「세한도」의 ‘집’을 중심으로 자신이 감상한 바를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1,000자)



(가)

지난해엔 <만학(晩學)>과 <대운(大雲)>두 책을 보내오고 올해에는 또 <우경문편(藕耕文編)>을 보내주니 이 책들은 모두 세상에 늘 있는 것이 아니로다. 천만 리 먼 북경에서 사왔고 여러 해에 걸쳐서 얻은 것이니 일시에 가능했던 일도 아니다. 지금 세상의 물결은 온통 권세와 이익만을 쫓는데 이런 일에 것처럼 마음과 힘을 쏟았으니 이는 권세와 이익을 좇지 않음이다. 외려 세상 사람들이 잇속을 좇듯 바다 밖 초췌한 사람에게 마음을 준 것이다. 사마천이 이르기를, 권세와 이익으로 만난 이들은 권세와 이익이 다하면 사귀이 멀어진다고 하였다. 그대 또한 도도한 세상 물결 중의 한 사람이거늘 그러한 잇속 밖으로 벗어났으니, 권세와 이익으로 나를 대하지 않는 것인가, 사마천의 말이 틀린 것인가! 공자께서는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듦을 알게 된다.”라고 하셨다. 송백(松柏)은 추워지기 전이나 뒤나 똑같은 송백이건만, 성인께서 특별히 ‘날씨가 추워진 뒤’를 힘주어 말씀하셨다. 이제 그대가 나를 대함은 예전이라고 더 잘한 게 없고 뒤라고 더 소홀히 한 것도 없으니, 예전의 그대야 일컬을 게 없지만 이후의 그대는 성인에게서 칭찬받을 만하지 않은가! 성인께서 특별히 일컬으심은 그저 뒤늦게 시드는 정절과 지조 때문만은 아닐지니, 또한 날씨가 추워진 때에 느껴 일어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아, 풍속이 순후했던 전한(前漢) 시대 급암(汲黯)과 정당시(鄭當時)처럼 어진 사람도 빈객이 그들의 형편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곤 했다. 그래도 하규(下邳)의 적공(翟公)이 대문에 써 붙인 말[* 주 :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을 때, 한 사람은 가난하고 한 사람은 부유할 때, 한 사람은 신분이 높고 한 사람은 신분이 낮을 때, 그 사귀의 정과 태도를 볼 수 있다.]은 박절하기가 그지없다. 슬프다, 완당 노인은 쓰노라.

[도움말]

「세한도」는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서 5년째 유배 생활을 하던 1844년, 자신을 대하는 제자 이상적의 한 절같은 마음에 감격하여 그에게 그려 보낸 작품이다. 추사는 그림 왼편에 따로 공간을 마련하여 「세한도」의 창작 경위를 위와 같이 적었다. 당시 추사의 나이는 59세였다.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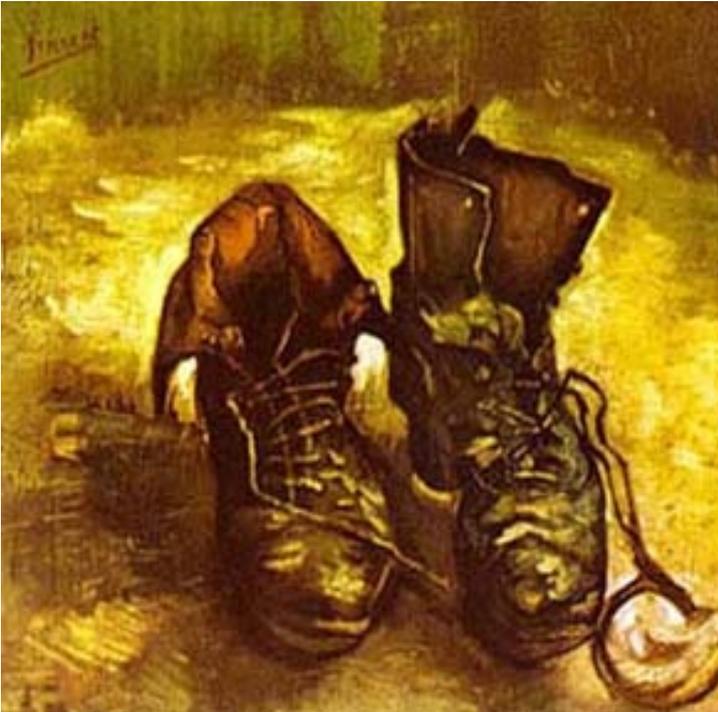


코드킴 인문논술

도상학(iconography)이라는 용어는 두 개의 그리스 단어, ‘이미지’를 뜻하는 ‘에이콘(eikon)’과 ‘기록하기’를 뜻하는 ‘그라페(graphe)’에서 유래했다. 이러한 어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미지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미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해석하는 것이 바로 도상학이다. 이를 위해 도상학자들은 예술 작품에 나타난 정보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단계에서 출발해, 관습적 의미를 중시하여 문헌 자료와 지식을 통해 작품의 주제나 개념을 이해하는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국가, 시대, 종교, 철학적 신조 등을 파악하여 작품의 본질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요컨대 도상학자들에게 회화 작품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읽어내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이를 위해 도상학자들은 문화적 코드를 정확하게 독해하여 작가의 의도를 복원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1305년에 제작된 조토의 프레스코화 「성탄」을 보자. 헛간에서 한 여자가 천으로 싸 어린애를 어머니에게 넘겨주고 있으며, 그 앞에는 나이 든 남자가 즐고 있고, 주변에 황소와 당나귀, 흰 양 여섯 마리와 검은 염소 한 마리가 있다. 그런데 관습적으로 보면 이 그림은 <성경>을 토대로 한 작품으로서 그림 속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앞의 남자는 요셉, 헛간은 마리아가 예수를 출산한 마구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해산을 마친 마리아는 깨어 있는데 요셉은 앉아서 즐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실제 아버지는 신이지 요셉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르면 속세의 아버지인 요셉을 성탄이라는 상징적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룰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다)



논술

“이 구두라는 도구의 밖으로 드러난 내부의 어두운 틈으로부터 들일을 하러 나선 이의 고통이 응시하고 있으며, 구두라는 도구의 실박한 무게 가운데는 거친 바람이 부는 넓게 펼쳐진 평탄한 밭고랑을 천천히 걷는 강인함이 쌓여 있고, 구두 가죽 위에는 대지의 습기와 풍요함이 깃들여 있다. (.....) 이 구두라는 도구에 스며들어 있는 것은 빵의 확보를 위한 불평 없는 근심과 다시 고난을 극복한 뒤의 말없는 기쁨과 임박한 아기의 출산에 대한 전전긍긍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의 전율이다. 이 구두라는 도구는 대지에 속해 있으며, 촌 아낙네의 세계 가운데서 보존되고 있다.”

빈센트 반 고흐의 「구두」에 대한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글이다. 그에 따르면 예술은 예술가의 주관성의 표현이 아니다. 예술의 본질은 좀 더 깊은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림이란 다른 무엇이 기 이전에 우선 물감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림은 이런 ‘사물적 차원을 넘어서는 또 다른 어떤 것’이며, 이 ‘다른 어떤 것’이 바로 예술의 본질을 이룬다. 하이데거에게 중요했던 것은 작가의 의도가 아니라 작품 그 자체가 말하게 하는 것, 곧 구두로 하여금 말을 하게 내버려두는 것이다. 그리하여 고흐의 그림은 구두라는 도구가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열어 보여준다. 그 결과 구두에 대한 관습적인 생각 속에 감추어져 있던 구두라는 존재의 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이처럼 하이데거의 견해에 따르면 예술의 진리란 근대 미학에서 말하는 재현으로서의 진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재현의 진리는 묘사 대상이 되는 존재자와의 일치, 곧 모방의 진리를 뜻한다. 하지만 작품 속에 정립되는 진리는 은폐된 진리를 드러내는 개시의 진리인 것이다. 작품을 현실 속 대상의 모방으로 바라보고, 그 대상을 작가 관련 맥락 속에 귀속시키고, 나아가 작가의 자의식의 표현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근대 미학의 특징이며 하이데거가 무너뜨리고자 했던 바로 그것이다.

논제 분석

1. (나)의 관점 설명
2. 1을 활용하여 (가) -> 세한도 해석
3. (다) -> (나) 비판
4. (다) -> 세한도 해석 (집을 중심으로)

제시문 분석

(나) - 도상학적 관점

주체 - 도상학자

배경 - 이미지는 소통을 위해 제작됨

양상 - 작품을 볼 때 작품 그 자체에서 출발하여, 관련 자료와 지식을 통해 작품의 본질적 의미 해석

결과 - 작가의 의도 복원 가능

(나)는 도상학적 관점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를 말하는 주체는 도상학자가 될 것입니다만, 앞으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렇게 필요한 정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이 도상학적 관점을 적용하게 된 이유는 '이미지는 소통을 위해 제작'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의미를 파악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품 자체에서 출발하여 작품과 관련된 자료와 지식을 살펴보고, 그들을 통해 작품의 본질적인 의미를 해석합니다. 그 결과 작가의 의도를 복원해낼 수 있습니다.

(가) - 세한도의 제작 배경

주체 - 김정희

배경 - 귀양을 감, 이상적의 한결같은 마음에 감탄

양상 - 한결같은 송백(소나무, 잣나무)을 이용하여 이상적의 마음을 표현, 귀양을 간 곳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

결과 - 김정희는 자신의 귀양 생활과 함께, 이상적의 한결같은 마음을 표현하게 됨

(가)는 추사 김정희가 세한도를 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한도를 그린 주체는 김정희입니다. 그림을 그리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이상적의 한결같은 마음에 감탄하여서 그런 것이겠지만, 간접적인 배경으로는 귀양을 갔기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는 그림에 한결같은 송백을 그려 이상적의 마음을 표현하였고, 귀양 간 곳의 쓸쓸한 모습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세한도라는 그림을 통해 김정희는 자신의 귀양 생활과 이상적의 마음을 표현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 - 하이데거의 예술을 보는 관점

주체 - 하이데거

배경 - 예술의 본질은 깊은 곳에서 나옴, 근대 미학이 퍼져 있음

양상 - 작가의 의도가 아닌, 작품 그 자체를 통해 작품의 진리를 추구

결과 - 근대 미학을 무너뜨리고자 함

제시문 (다)는 하이데거가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하이데거가 됩니다. 그가 이 관점을 이야기했을 때에는 근대 미학이 퍼져있었습니다. “작품을 현실 속 대상의 모방으로 바라보고, 그 대상을 작가 관련 맥락 속에 귀속시키고, 나아가 작가의 자의식의 표현으로 바라보는 것” 이라는 특징을 갖는 근대 미학에 맞서서, 예술의 본질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가의 의도를 통해 파악할 게 아니라, 작품 그 자체를 통해서 작품의 진리를 추구하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근대 미학이 추구하는 것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것이지요.

문제 풀이

1. (나)의 관점에서 (가)를 활용하여 세한도 해석하기

코드킴 인문논술

(가)의 글에서 찾을 수 있는 요소 -> 세한도의 해석

- 자신이 귀양을 감 -> 세한도에 자신의 귀양지를 그림
- 송백은 추워지기 전이나 후나 똑같음 -> 제자 이상적의 한결같은 태도를 칭송함
- 하규의 적공이 때문에 써 붙인 말 -> 자신 주변에 사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나무 몇 그루로 그림

2. (다) -> (나) 비판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작품의 의미를 볼 때, 관련 자료와 지식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의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으로는 그림이 나타내고자 하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작품의 의미는 그보다는 더 깊은 곳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오로지 작품 자체만을 바탕으로 의미를 도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작품이 가진 더욱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3. (다) 관점에서 세한도 해석

작품 자체만을 중시하는 (다)의 하이데거의 입장에서 세한도의 집을 위주로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세한도에 그려진 집의 특징들 -> 작품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

- 작은 문이 반쯤만 열려있음 -> 작가는 집 안에 갇혀있지만, 그곳에서 타인과의 소통을 기원함
- 집의 폭이 좁고 길음 -> 작가는 깊은 곳에서 자신이 갇혀있음
- 집에 어떤 무늬도 존재하지 않음 -> 작가의 소박한 삶의 태도와 외로움을 보여줌
- 집 주변에 나무 몇 그루를 제외하면 황무지 -> 자신의 외로움을 표현
- 집에 어떠한 창문도 존재하지 않음 -> 작가가 갇혀있음을 표현, 쓸쓸함과 같은 감정을 표현

코드킴 인문논술